



성기영 아가씨 | 작가, 작곡가

## |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살다 보면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스스로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의구심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개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인간의 거친 발들이 정신없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밟혀 죽을 위기였습니다. 저는 젖 먹던 힘을 다해 커다란 벽장 밑 공간으로 숨어들어갔습니다. 개미라는 존재의 무능함에 깊은 분노가 느껴졌으나,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벽장 밑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한숨 돌리고 나서 둘러보니, 이 바닥은 바깥보다 훨씬 시원한 데다가 꽤 볼거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져 어찌어찌 벽장 아래로 흘러들어 온 것 같은 잡동사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쓰고는 있지만 꽤 값나가 보이는 파란 알보석 반지, 한때는 반짝반짝 빛났을 법한 목걸이 펜던트, 젓빛 실을 매단 바늘, 바위처럼 생긴 흰 바둑알도 보였습니다. 저는 어슬렁어슬렁 그 바닥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글씨들이 적힌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 종이도 글자들도 작은 개미인 제 눈에는 너무 커,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글자들이 하나하나 종잇장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문득 그게 아름다운

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가 날아가는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은 더 이상 벽장 밑이 아니었습니다. 탁 트인 파란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 무심코 방안을 둘러보니 벽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납작 엎드려 벽장 아래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언제 들어간 건지 알 수 없는 만 원짜리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 못 본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듯 반가웠습니다. 손을 뻗어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배춧잎과 악수하니 빙긋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의 꿈을 통해 마음속의 지혜가 들려준 이야기.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인들 고민이 없겠습니까. 벽장 밑 개미로 사는 데에도 그만한 재미는 있는 법.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언지도 모른 채 갖지 못한 것만 탐하며 불행해져 갑니다. 날마다 한 손가락에 한 개씩, 감사할 일을 열 개만 꼽으며 살아간다면 늘 행복할 거라던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네요.

세상을 향해 불평을 터뜨리기 전에 제 마음, 그리고 제 방이나 구석구석 즐기고 닦고 비워야겠습니다.



### 화상통화로 고해성사를 볼 수 있나요?

전화나 이메일, 화상통화로도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데, 고해성사는 왜 불가능하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는 고백일 수는 있겠지만 성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해성사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 곧 하느님과 사람이 실제로 만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대리인인 사제를 만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자기 혼자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느님을 만나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고해성사의 핵심입니다.

클.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